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수백 채의 이불이 전하는 무게



**한** 국여성재단은 CJ홈쇼핑과 함께 '저소득층 여성가장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 생방송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모금 방송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과 가족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청자들 중 후원을 원하는 기부자들이 전화를 걸어 매달 자동이체로 정기후원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매달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전화연결을 진행하고 있다.

**교향악보다 아름다운 후원 벨소리**  
지난 10월 29일 방영된 생방송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방송이었다. 73세의 노모가 아들을 앞서 보내고 정신지체2급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부양하는 처절한 삶의 몸부림이 그려졌다. 집안의 이불들은 모두 더럽고 축축한 나머지 TV모니터를 보기만 해도 역한 냄새가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찌든 때로 얼룩진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밥상도 없이 온 가족이 쭈그리고 앉아 절인 배추와 맨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결과 다른 때보다 많은 후원금이 약정되었고, 특히 평소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40~50대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많은 후원자들이 반드시 그 할머니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방송의 여운은 이튿날까지 이어져, 재단 사무실로 전화하는 후원자들의 대부분이 그 할머니만을 지원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축축하게 얼룩진 이불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던 후원자들이 약정한 이불만도 수백 채에 이르렀다. 모금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특별한 감수성에 감동하곤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TV를 통해 소개되는 사례에 감동하여 그렇게 즉각적인 후원약정을 할 수 있을까? 방송이 시작되면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숨을 죽이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린다. 하나 둘

이어지는 벨소리가 중반에 이르면 모든 전화기는 통화중 상태가 되고, 후원의 손길을 연결하는 벨소리와 안내자들의 음성은 이 세상 어느 교향악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변해 듣는 이의 온몸을 전율하게 한다.

**성숙한 기부문화로 풀어야 할 딜레마**  
방송사례를 찾기 위해 지친 삶을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나곤 한다. 특히 여성가장들의 경우 모든 장기에 병을 신고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고, 험한 공사에서 벽지를 바르며, 어느 단란한 가족을 위해 빨래와 청소하고 음식을 짓는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든 몸을 버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방송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사례로 결론지어진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후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집도 정돈되어서는 안 되고, 입성이 말끔해서도 안 된다. 가족 중 누군가는 범인이 인정할 수 있는 심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드디어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야만 한다. 이 지점에서 후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후원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도움의 손길이 조금만이라도 닿는다면 새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이들을 일단 밀어둔 채,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사례를 찾아야만 하니 말이다.

생면부지의 대상을 보고 50대의 전화가 쉽 없이 울어대는 후원의 현장, 젖은 이불을 보고 목이 메어 이불 100채를 약정하는 기부자들. 그 따뜻한 인정에 감동해 숨이 벅차기는 하지만, 이제 나누는 마음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 약정된 수백 채의 이불에 깔려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은 수백 채의 물리적인 무게가 느껴져서만은 아니다. 성숙한 기부문화를 향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워지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